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업경대'에 녹화되고 있다



불화 속의 명장면 (26)

지옥세계(상): 청룡사 명부전 시왕탱 '제5염라대왕도'



그림2: 지장보살의 구원, 본도 중간부분, 염라대왕 심판의 순간에 나타나 마자를 구하는 지장보살.

인간 백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근심걱정 다 제하면 단 사십을 못 사나니/ 어제 오늘 성년 몸이 저녁 낮에 병이 들어/ 섬섬하고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나니 냉수르다/ 인삼녹용 약을 쓴들 약터이나 입을소나/ 판수 들어 경 읽은들 경 덕이나 입을소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전 비나이다/ 칠성님께 발원하여 부처님께 공양한들 어느 곳 부처님이 감동을 하실소나/ 제1전에 진광대왕 제2전에 초강대왕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관대왕 제5전에 염라대왕 제6전에 변상대왕 제7전에 태산대왕 제8전에 평등대왕 제9전에 도시대왕 제10전에 전륜대왕/ 열 시왕전 부린 사자 시왕전에 명을 받아 일직사자 월직사자 한 손에 패자 들고/ 또 한 손에 장검 들고 올라사슬 빗기치고 활동같이 굽은 길로 살대같이 달려와서/ 달은 문 박차면서 천둥같이 호령하여 이름 석자 불러내어 어서나소 바빠 나소...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슬퍼마라/ 명년 산월 불이 되면 너는 다시 피러니와/ 인생 한 번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회심곡(回心曲), 서산대사, 조선전기>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삶에의 미련을 미처 못 버리고 마지막으로 발버둥쳐, 보약이다. 공양이다. 어머니. 부처님 찾았나. 하느님까지 찾아보지만, 어느덧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이다. 시왕의 명령을 받아 나뭇 데리러 온 저승(일직·월직) 사자는 내 앞에 촛살같이 달려와 오락줄 들고 거역 못할 운명으로 딱하니 버리고 섰다. 세상은 젊음을 찬양 일보이고, 내가 평생 일귀은 삶은 아픈 몸 하나에 무색해지는 듯하다.

회심(回心), '마음을 고쳐먹다 또는 마음을 돌려 반성하다'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이 회심곡은 조선중기의 고승 서산대사 휴정(1520~1604년)이 지은 장편 가사이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73세 노장의 나이로 승병을 일으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스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탓에 흥흥해진 민심을 정화시키고자, 착한 일을 권장하는 권선가(勸善歌)로서 이 회심곡을 지어 널리 퍼뜨렸다.

민요 및 상여소리의 일부로도 정착해 전래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이 회심곡이, 당시 민중 사이에 크게 유행했고 또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구구절절 와 닿는 이유는, 그 노랫말 속에 우리의 전통적 생사관이 아주 쉽고도 명료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익과 망자의 천도를 위해 행해진 이 점찰법회는 그 기록이 삼국유사 곳곳에서 확인되어 신라시대 당시 상당히 성행했던 법회 중 하나로 추정된다. '전생의 업'이란 마치 기독교의 '인간의 원죄'와도 같은 종교적 기능을 하여, 그 참회 의식과 수행을 통해 일종의 마음의 정화를 얻는다. 심지어 카타르시스가 깊을수록 신자들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청정함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종교적 체험을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서민에게까지 널리 유행했던 '십재일(十齋日)' 역시 <지장본원경>에 그 연원을 두며, 경전에 명기된 10일간 단이라도 경전을 독송하고 계를 지키면 현재의 모든 업장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지옥 문턱으로 들어가는 순간 생생하게 묘사 지장보살 대지의 신에서 망자 천도 역할로 이동 명부신앙 신들 불교로 포섭되며 시왕신앙 형성

사람은 칠성님께 명(命)을 받아 태어나고, 또 명이 다해 죽으면 생전에 지은 업대로 명부세계의 열 명의 시왕 앞에서 차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옥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순간의 묘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고, 이제서야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후회해야 소용없으니 살아생전 넉넉한 마음 착하게 다 쓰고 가자는 내용이다.

우리의 사후관인 극락과 지옥, 그 중 지옥세계를 담당하는 지장신앙과 시왕신앙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유래하는 것일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유행한 지장신앙의 3대 경전으로는 <대승대지장심결>(약칭 지장심결) <점찰선악보경>(약칭 점찰경) <지장보살본원경>이 있다. 전생의 선업과 악업을 전제, 그 깊은 업장을 씻고 청정함을 얻기 위해 지장보살을 염불하며 천일 간 참회 수행 정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점찰법회'는 신라시대 원광 법사의 행적에서부터 확인된다.

데, 이 각각의 10일에 시왕과 원불(願佛)의 명칭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재(齋)를 올림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 지옥이 대응되게 나열되어, 현재뿐 아니라 다가올 내세에서의 고통까지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지장신앙 관련 초기 경전인 <지장심결경>에서도 알 수 있듯, 대지(大地)의 신(神인 지장보살)은 처음에는 현재의 이익과 풍요로움을 그 역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것이 점점 현재와 내세 양자를 결해 다루는 역할로, 또 나중에 내세 즉 망자의 천도 쪽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통사적 전이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지장보살이 명부세계의 구원자로서 그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지장신앙과 시왕신



그림1: 염라대왕과 업경대, 청룡사 시왕탱 '제5염라대왕도' 상단부분. 업경대는 생전의 악업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로, 죄인이 가족을 도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앙이 결합하면서부터라 하겠다. 이미 중국 당 중기에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이라는 위경(魏經)이 찬술되어, 지장신앙과 중국 명부신앙이 결합하게 된다. 대표적 시왕으로는 염라대왕, 태산대왕을 들 수 있는데, 염라대왕(또는 염라천자는 본래 인도의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야마천(夜摩天)'으로 이를 음역한 것이 '염라'이다. 또 태산대왕은 인간의 복록과 수명을 관장하는 중국 고유(또는 도교)의 대표 신인 '태산부군(泰山府君)'으로, 양자 즉 인도의 중국 고유의 명부신앙 속의 신들이 불교로 포섭되어 시왕신앙이 형성되게 되었다.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지장보살과 시왕은 지옥의 구원자와 심판관으로, 민중 사이에 더욱 그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다. 지금도 사찰의 명부전을 들여다보면, 지장보살(합시하는 무두귀

왕과 도명존자와 함께 지장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시왕이 늘어서는 명부세계의 체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중심으로 산 사람을 위한 '예수재(預修齋)'와 죽은 사람을 위한 '49재'가 성행하여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예수(預修)'란 '미리 닦는다'라는 뜻 그대로 49재를 미리 닦아 두어, 죽은 뒤 49일 동안 영혼이 중음(中陰 또는 中有: 죽은 후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사이, 영혼이 다시 태어날 곳이 정해지지 않고 정착 못하고 떠도는 기간)에서 헤매는 것을 방지한다. 49재(7·7일, 죽은지 49일째 되는 날)는 떠돌던 영혼의 집결유예 기간이 끝나는 날과도 같은데, 후손들이 열심히 공덕을 들이면 망자의 업이 감해져 그 영혼이 안락한 곳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우리의 대표적 영혼 천도제(度度齋) 중 하나이다.

죽은 영혼은 49재가 있는 날까지 일곱 명의 저승왕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49재가 끝나도 백일재(百日齋), 소상재(小喪齋), 대상재(大喪齋)에 해당하는 나머지 세 명의 저승왕의 심판을 총 열 명의 시왕(十王)을 거쳐야 비로소 그 영혼의 길고도 고된 여정이 끝난다. (계속)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 겸임교수)



그림3: 대해지옥 본도 하단부분. 지옥의 악귀들이 지장보살을 인양한 형태. 이로 인해 불꽃 불 정구 속의 죄인들을 불고 있는 장면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관, 스테트형강관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연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명당을 만들어 주면 공이 바뀝니다 명당 육박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 불가 바뀔수록 좋은 운으로 변화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제나 삼계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러구 노력해도 안되는분, 사주가 인종으신분들은 명당육박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박방 051)865-9933

전도재 49재와 결번의 처방법 전회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문 명당육박방은 각 시현 양지 철학관에 있습니다.
육박방의 육박방이 양금양이 양금양으로 변합니다.